2014년 7월 2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친절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**문의** : 중기청 창업진흥과 과장 김성섭(042-481-4407) 사무관 이형철(042-481-4429)
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 팀장 조성현(042-480-4360) 과장 이명종(042-480-4361)

중소기업청 · 창업진흥원

‘13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발표(국가승인통계)

1 창업기업은 국민경제 동력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의 보고

○ (창업기업 수) ‘11년 164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50.7%

○ (종사자 수) ‘11년 492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38.9%

○ (매출액) ‘11년 924조원으로 창업기업당 평균 5.6억원

2 제조업, 지식서비스업[1]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자영업 등 기타업종에 비해 일자리 및 매출액 창출효과가 높음

○ (일자리) 기술창업 수는 38.1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3.3% 수준

* 제조업(14.2만개), 지식서비스업(23.9만개), 도소매업(47.7만개), 숙박음식점업(44.4만개)

- 그러나, 기술기반 창업은 평균 종사자수는 “5.3명”으로 도소매업(1.8명), 숙박·음식점업(2.1명) 등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음

○ (평균매출액) 기술기반 창업은 “7.1억원”으로 자영업에 월등히 높음

* 제조업(8.8억원), 지식서비스업(7.1억원), 도소매업(4.7억원), 숙박음식점업(1.0억원)

3 이공계 및 석·박사 고급기술인력 창업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높음

○ (일자리) 평균 종사자수는 이공계 창업자가 4.8명으로 기타 전공에 비해 높고, 박사급 창업자는 9.4명으로 기타 학력에 월등히 높음

○ (매출액) 평균 매출액은 이공계 창업자가 10.5억원으로 기타 전공에 비해 높고, 박사급 창업자는 21.9억원으로 기타 학력에 매우 높음

4 순이익은 창업 후 3년까지 상승 → 4·5년차에서 감소한 이후 다시 상승하는 "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" 곡선 형태

5 창업기업 중 "본(born) 글로벌" 창업기업은 부족한 상황이며, 창업 후 수출·해외진출 형태는 단순수출이 압도적(89.3%)

* 창업시 목표시장 : 국내시장(98%), 해외시장(0.8%), 국내외시장(1.2%)

---

1) 표준산업분류상 6개 업종(EU, OECD 기준) : ①출판·영상·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②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③사업지원서비스업, ④교육서비스업, ⑤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⑥예술, 스포츠업

Ⅰ 조사 배경

□ **"창업기업"**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

□ 그간 창업관련 **다양한 지표가 발표**되고 있으나, **전체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을 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종합 실태조사는 미비**

* 창업기업관련 실태조사 : 신설법인 수(중기청), 기업생멸통계(통계청) 등

□ 따라서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과 창업진흥원(원장 강시우)은 창업기업 현황,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**「창업기업 실태조사*」를 최초로 국가승인통계로 인정('13.11.27) 받고 그 주요결과를 최초로 발표**

* 조사개요 : '13.12.2 ~ '14.2.28,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 6,000개를 대상

** 모집단은 '11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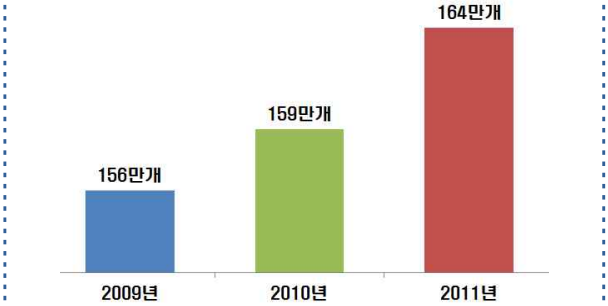
Ⅱ 조사 주요 내용

1 [총괄] 창업기업은 국민경제의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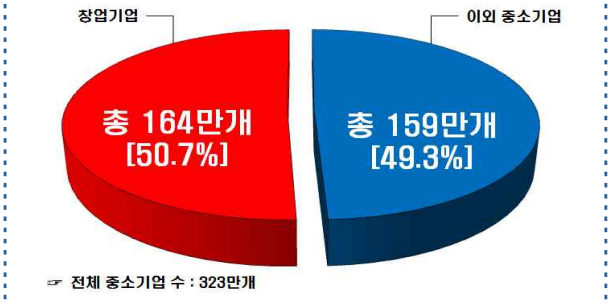
□ '11년 기준 **"창업기업 수"는 총 164만개**로 **최근 3년간 2.4% 증가**하여, **전체 중소기업('11, 323만개)의 50.7%를 차지**

* 연도별 추이 : ('09) 156만개 → ('10) 159만개 → ('11) 164만개

창업기업수 추이



창업기업 비중 (2011년 기준)



○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**“종사자 수”는 492만명**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('11, 1,263만명) 중 38.9%로 **국내 일자리 창출 보고(寶庫) 역할**

○ 또한 창업기업 **“총 매출액”은 총 926조원**이며 **창업기업당 평균 5.7억원**을 창출하여 국가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

□ **기타 창업기업의 일반현황**은 다음과 같음

○ **“업종별 현황”은** 제조업 14.2만개(8.7%), 지식서비스업 23.9만개(14.6%)로 **기술기반 창업이 전체 창업기업의 23.3%(38.2만개)**

* 도·소매업(29.2%, 47.8만개), 숙박·음식점업(27.1%, 44.4만개)

- **(제조업)** 첨단기술(0.6%), 고기술(1.7%), 중기술(2.3%), 저기술(4.0%)

- **(지식서비스업) 교육서비스업**(6.6%)으로 가장 높고,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(3.2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2.2%) 순

(단위 : 개, %)

구분				창업기업 수	비중
기술기반창업	제조업	첨단기술	의약품 제조, 항공기 제조 등	9,921	0.6
		고기술	화학물질, 전기장비 제조 등	28,415	1.7
		중기술	1차 금속, 선박, 보트 제조 등	37,950	2.3
		저기술	식료품, 석유제품, 신발 제조 등	65,853	4.0
		제조업 전체		**142,139**	**8.7**
	지식서비스업	출판, 영상,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	15,371	0.9
	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36,842	2.2
		사업지원 서비스업		19,190	1.2
		교육 서비스업		108,709	6.6
	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52,401	3.2
		예술,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		6,869	0.4
		지식서비스업 전체		**239,382**	**14.6**
	전체			**381,521**	**23.3**
도매 및 소매업				477,844	29.2
숙박 및 음식점업				444,304	27.1
전체				**1,638,739**	**100.0**

○ **“학력별 현황”은 고졸이하(55.5%), 학사(32.8%) 창업자**가 많음

- 다만, “기술기반 창업 CEO”의 경우 학력별로는 학사(52.1%), **석·박사**(11.5%) **비중**, 경력별로는 **이공계(26.3%) 비중이 크게 증가**

* 전체창업 : 고졸이하(55.5%), 전문학사(7.7%), 학사(32.8%), 석박사(3.9%)
기술기반창업 : 고졸이하(28.7%), 전문학사(7.7%), 학사(52.1%), 석박사(11.5%)

○ **“전공별 현황”**은 **인문상경계(23.6%)**, 이공계(13.9%), 예체능계(4.0%) 순

○ **“업력별 현황”**은 창업 1년차(25.8%), 3년차(15.0%), 5년차(9.9%), 7년차(8.2%)로 폐업 등으로 인해 **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수는 감소**

○ **“지역별 현황”**은 **경기(23.8%), 서울(19.3%)**이에 창업기업이 가장 많고, 경남(7.2%), 부산(6.3%), 인천(5.7%), 경북(5.6%) 순

○ **“규모별 현황”**은 **1~4명(91.4%)이 대부분을 차지**하며, 5~9명(5.6%), 10~19명(1.7%), 20~49명(0.7%), 50~99명(0.4%)이며, **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100~299명(0.2%) 창업기업도 존재**

○ **“조직별 현황”**은 개인사업체가 80.1%, 법인사업체가 19.9%

2 기술기반 창업의 일자리 및 매출액 창출효과가 높음

□ ‘11년 기준, 제조업 종사자수는 91만명, 지식서비스업 종사자수는 111만명으로 **기술기반 창업이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41.0%** 수준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비중(23.3%)에 비해 매우 높음

○ 특히, 평균 종사자 수는 제조업 6.4명, 지식서비스업 4.6명으로 **기술기반 창업이**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에 비해 **고용창출 효과가 큼**

(단위 : 명, %)

구분				종사자수	비중	평균
기술기반창업	제조업	첨단기술	의약품 제조, 항공기 제조 등	96,477	2.0	9.7
		고기술	화학물질, 전기장비 제조 등	165,624	3.4	5.8
		중기술	1차 금속, 선박, 보트 제조 등	381,565	7.8	10.1
		저기술	식료품, 석유제품, 신발 제조 등	265,656	5.4	4.0
		제조업 전체		909,321	18.5	6.4
	지식서비스업	출판, 영상,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	69,689	1.4	4.5
	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209,321	4.3	5.7
		사업지원 서비스업		131,260	2.7	6.8
		교육 서비스업		267,736	5.4	2.5
	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405,770	8.3	7.7
		예술,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		24,216	0.5	3.5
		지식서비스업 전체		1,107,992	22.5	4.6
	전체			2,017,313	41.0	5.3
도매 및 소매업				883,133	18.0	1.8
숙박 및 음식점업				911,435	18.5	2.1
전체				4,917,398	100.0	3.0

□ ‘11년 기준, 제조업 매출액은 123조원, 지식서비스업은 144조원으로 **기술기반 창업이 전체 창업기업 매출액의 29.0%**

○ 특히,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 8.8억원, 지식서비스업 6.0억원으로 **기술기반 창업이 자영업 창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큼**

(단위 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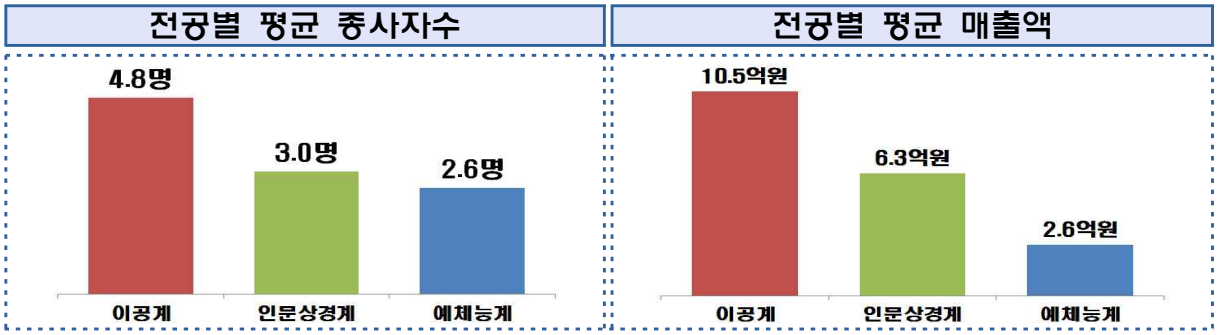
구분				매출액	비중	평균
기술기반창업	제조업	첨단기술	의약품 제조, 항공기 제조 등	310,547	3.4	31.3
		고기술	화학물질, 전기장비 제조 등	269,131	2.9	9.5
		중기술	1차 금속, 선박, 보트 제조 등	399,163	4.3	10.5
		저기술	식료품, 석유제품, 신발 제조 등	253,778	2.7	4.0
		제조업 전체		**1,232,620**	**13.3**	**8.8**
	지식서비스업	출판, 영상,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	156,209	1.7	10.2
	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282,069	3.1	7.7
		사업지원 서비스업		88,372	1.0	4.6
		교육 서비스업		224,944	2.4	2.1
	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619,367	6.7	11.8
		예술,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		73,676	0.8	10.7
		지식서비스업 전체		**1,444,638**	**15.6**	**6.0**
		전체		**2,677,258**	**29.0**	**7.1**
도매 및 소매업				2,260,932	24.5	4.7
숙박 및 음식점업				439,831	4.8	1.0
전체				**9,238,399**	**100.0**	**5.7**

3 고급기술인력 창업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높음

□ 창업기업 중 “**이공계**” **기술인력 창업기업은,**

○ “**평균 종사자수**”는 **이공계 창업자 기업이 4.8명**으로, 인문상경계(3.0명), 예체능계(2.6명) 창업자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고

○ “**평균 매출액**”은 **이공계 창업자 기업이 10.5억원**으로 인문상경계(6.3억원), 예체능계(2.6억원) 보다 2~4배 이상 높음



□ 창업기업 중 **“석·박사” 기술인력 창업기업**의,

○ **“평균 종사자수”**는 창업자가 박사(9.4명), 석사(4.7명), 학사(3.9명), 고졸이하(2.4명), 전문학사(2.3명) 순으로 높고,

○ **“평균 매출액”**은 창업자가 **박사(21.9억원)**, 석사(9.4억원), 학사(8.4억원), 고졸이하(3.9억원), 전문학사(3.9억원) 순으로 높음

4 창업기업 순이익은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 곡선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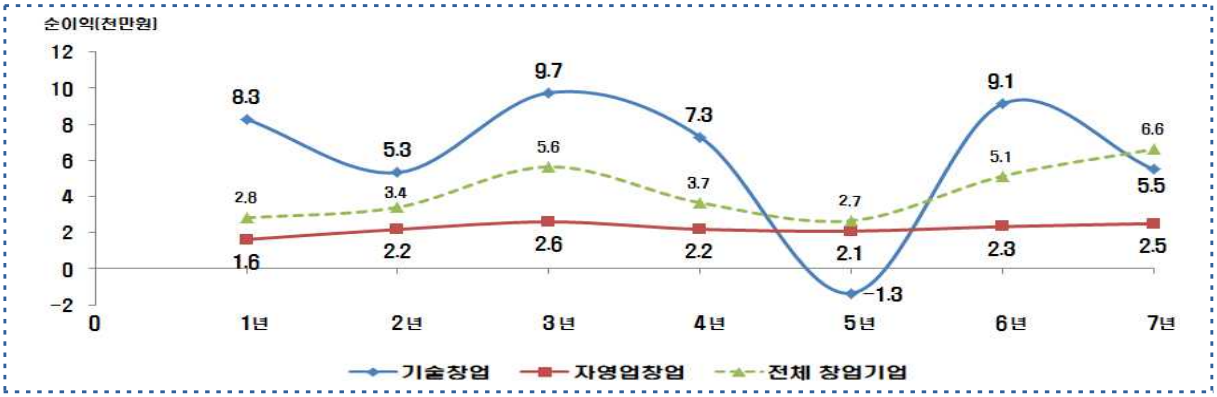
□ ‘11년 기준, **창업기업 순이익은 63조원으로 기업당 평균 0.4억원**

□ 평균 순이익은 **“3년차”까지 상승**하다가, **4·5년차에서 감소 후 다시 상승**하는 **“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” 곡선 형태**

○ **“기술기반 창업”**의 **죽음의 계곡**(death valley)은 도·소매업 등 **자영업 창업 보다 계곡의 깊이가 더 깊고,**

○ 계곡을 건널 경우 **순이익이 보다 크게 증가하는 잠재력을 보유**

기술기반창업의 ‘죽음의 계곡’ (2011년 기준, 연차별 당기순이익)



* 자영업창업 : 도매 및 소매업(G), 숙박 및 음식점업(I)

□ **“업종별”**로는 제조업 7조원(평균 0.6억원), 지식서비스업 16조원(평균 0.7억원)으로 **기술기반창업이 전체의 36.5%**(평균 0.67억원)이며, **자영업창업**(도·소매업 평균 0.25억원, 숙박·음식점업 평균 0.17억원)**에 비해 2~4배 높은 수준**

5 본(born)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·수출이 매우 부족

□ 창업 시 목표시장은 **국내시장(98.0%)**, 해외시장(0.8%), 국·내외시장(1.2%) 순으로 **내수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, "본(born) 글로벌" 창업기업이 매우 부족한 상황**

○ 또한, 창업 후 **해외수출·진출 비중은 1.5% 수준에 불가**하고, 해외진출 방법은 **"단순수출"(89.3%)이 대다수***

* 단순수출(89.3%), 직접진출(1.1%), 수출 및 직접진출 병행(9.6%)

□ 업종별로는 **"제조업 창업기업" 글로벌 창업 및 해외수출·진출이 타 업종에 비해 활발**하고, **"서비스 창업기업"은 내수 중심**

○ 창업 시 글로벌 시장 목표기업은 **"제조업"이 높고**(4.7%), **"서비스 창업"은 내수 중심**이나, **창작·예술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**은 글로벌 시장 목표 비중이 **상대적으로 높음**

* 제조업(4.7%), 사업지원서비스업(14.5%), 예술·스포츠·여가서비스업(7.3%), 도·소매업(2.9%), 음식·숙박업(0.4%) 등

○ 창업 후 해외수출·진출기업은 **"제조업 창업기업"**이 4.7%로 지식서비스업(0.4%), 도·소매업(3.1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

(단위 : 개, %)

구분	창업기업	진출여부		진출형태		
		진출	미진출	직접 진출	직접진출과 수출 병행	단순 수출
제조업	142,139	4.7	95.3	1.7	18.2	80.1
지식서비스업	239,382	0.4	99.6	0.0	18.5	81.5
도매 및 소매업	477,844	3.1	96.9	0.0	3.6	96.4
숙박 및 음식점업	444,304	0.0	100.0	0.0	0.0	0.0
전체	1,638,739	1.5	98.5	1.1	9.6	89.3

6 기타 사항

1 창업시 애로 및 소요자금

○ **(창업 장애요인) '자금확보 어려움'**(52.7%),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, **'실패 두려움'**(32.0%), **'경제적 생계 유지'**(28.0%), **'지식·능력·경험의 부족'**(18.8%) 순

* 자금확보 어려움(52.7%), 실패의 두려움(32.0%), 경제적 생계 유지(28.0%), 지식·능력·경험의 부족(18.8%), 부정적 사회분위기(2.1%), 지인의 만류(1.1%), 기존 직업활동의 제한(0.3%) 순

○ **"창업준비기간"은** 창업결정시부터 창업까지 **평균 8.7개월** 소요

* 제조업(9.0개월), 지식서비스업(8.5개월), 도·소매업(9.9개월), 숙박·음식점업(6.6개월)

○ **창업시 평균 소요자금은 2.2억원이 소요***되고, 자금조달방법은 **자기자본이 96.1%**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, **민간금융**(16.1%), **정부금융**(6.9%), **벤처캐피탈·엔젤투자**(0.4%) 순

* 제조업(1.3억원), 지식서비스업(3.0억원), 도·소매업(1.0억원), 숙박·음식점업(0.8억원)

2 재무 및 경영상황

○ **"손익분기점"은** 창업기업은 **평균 14.3개월차에 손익분기점을 초과**(손익분기점 매출액 4.4억원)하여, **85.4%가 손익분기점을 초과**

○ 창업기업 당 **평균자산 5.4억원, 평균자본 1.7억원, 부채 3.8억원**

(단위 : 개, 만원)

구분	창업기업 수	자본	부채	자산
전 체	1,638,739	16,540.7	37,533.8	54,074.5

- 창업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0.6%, 부채비율은 226.9%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재무적 안정성이 열악

* 자기자본비율 : 대기업(40.8%), 중소기업(35.8%), **창업기업(30.6%)**
부채비율 : 대기업(144.9%), 중소기업(179.2%), **창업기업(226.9%)**

3 인력 및 조직현황

○ 인력현황은 정규직(평균 2.3명)이 비정규직(평균 0.7명)보다 3배 많아, 창업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은 낮음

○ 창업기업 종사자 인력구성은 관리부분 인력(1.50명)이 가장 많고, 생산(0.68명), 영업(0.12명), R&D(0.03명) 순

- 그러나, 부족인력 비율은 **"R&D" 인력 부족율**(33.3%)**이 가장 높음**

< 인력구성 및 부족인원 >

(단위 : 개, 명, %)

구분	전체	직종				
		관리	생산	영업	R&D	기타
인력구성	3.00	1.50	0.68	0.12	0.03	0.67
부족인원	0.19	0.03	0.05	0.02	0.01	0.08
부족인력 비율	6.3	2.0	7.4	16.7	33.3	11.9

4 기술혁신 현황

○ **산업재산권 등록건수는 평균 4.4건**이며, **출원건수는 평균 3.8건**

* 제조업(등록 5.3건, 출원 3.4건), 지식서비스업(등록 4.5건, 출원 5.4건), 도·소매업(등록 2.1건, 출원 1.0건), 숙박·음식점업(등록 0건, 출원 0건)

○ 해외특허, 국제규격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**0.3%**

* 국제규격(ISO, CE)(73.0%), 해외특허 (8.2%), 해외유명규격(UL, JTS)(4.1%)

○ **창업기업의 99.0%**가 **R&D** 전담부서·인력 없음
(R&D 전담부서 보유 0.4%, R&D 전담인력 보유 0.6%)

* 제조업 : 전담부서·인력 미보유 95.4%(전담부서 보유 2.7%, 전담인력 보유 1.9%)
* 지식서비스업 : 전담부서·인력 미보유 96.0%(전담부서 보유 1.3%, 전담인력 보유 2.7%)
*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 : R&D 전담부서·인력 미보유 100.0%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 사무관(☎ 042-481-44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